

지루한 방학? 절에 가면 신난다!!

전국 사찰서 특성화 템플스테이 열려... 다이어트·명상·단기출가 등 '다채'

방학은 자녀 교육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지만 계획한 만큼 건강과 공부부담을 동시에 관리하기란 어렵다. 요즘은 한파가 이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핑계로 집밖에 나가기도 않고 컴퓨터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보며 겨울방학을 보내는 자녀를 보며 애타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전국 사찰에서는 이런 부모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의 관리와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색다른 방학선물을 해보자.

비만으로 변하기 딱 좋은 겨울방학. 비만 해결과 함께 새 학기 새 출발을 위한 특성화 템플스테이가 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033-339-6606)는 '몸성장 마음성장'을 주제로 다이어트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조계종 포교원,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공동주최하는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청춘놀이, 아동청소년 성격검사(MMTC)를 통한 성격유형 이해와 존중 기회 확대, 자기주도 학습 및 시간관리 능력 강화 기법 제공 등을 기본으로 한다. 템플스테이 기간에는 기본적인 사찰습의와 타종채침, 요가 및 명상을 비롯해 숲 체험, 108배 명상, 1km 단축마라톤 등을 실시한다. 또 식

습관 및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사찰음식 개발식단표에 따른 맞춤형 음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생활로의 전환을 돕는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월 1-7일 실시하며 참가비는 30만원이다. 그밖에 스키캠프와 월정사 템플스테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스키캠프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2월 28일까지 2박3일간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 가능하다.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051-864-4569)는 1월 30-31일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특성화 캠프를 개최한다. MBTI 성격유형 검사, 겨울 명상, 빛 명상, 의사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성장 나무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 공동작업 등의 단체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는다. 참가비는 5만원, 선착순 50명 접수 받는다.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 054-436-6084)는 1월 19-24일 어린이 단기출가를 실시한다. 단기출가 기간에는 썰매타기, 전통놀이체험, 고무마 장작굽기 외에 부처님의 생애, 감사편지쓰기, 108염주 만들기, 소원 연등 만들기, 명상, 다도 등으로 놀이와 전통불교문화



다도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 <현대불교 자료사진>

체험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다.

경주 팔공사(주지 적운, 054-744-1689)에서는 1주일을 단위로 최대 4주까지 사찰에서 영어공부, 선무도 체험, 기초 예절, 승마, 문화재 탐방, 다도, 국공 등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가가능하다.

나주 심함사(주지 원광, 061-334-

2880)는 1월 24-30일, 2월 6-7일 부모은중경 강의, 한지공예, 난타공연, 종명상, 눈썰매, 사불수행, 만다라 주머니 만들기, 108배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061-782-7600)는 2월 20-21일 새다짐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 061-852-1755)는 1월 29-31일 전통무예 등 전통 놀이를 중심으로 어린이 겨울캠프를 실시하고, 2월 5-7일은 가족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 활인선원(선원장 대호, 070-7519-9929)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 6-10일, 20-24일 단기출가를 실시한다. 5일 동안 단식, 묵언, 법문, 점검, 행선, 좌선, 예불, 선어록독송, 요가, 율력 산행 등을 통해 삶의 목표와 인생관을 스스로 잡도록 지도한다.

그밖에도 전국 사찰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전통문화체험과 템플스테이를 동시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영월 범홍사(주지 도안, 033-375-9173)는 호아지리박물관 탐방, 선돌·선암 마을, 청룡포 등 영월 지역문화여행과 더불어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600여 고려인에 '한국' 알려

파라미타 중앙아시아서 교류활동 펼쳐

한국 청소년들이 600여 독립운동가의 후예 고려인들에게 고국의 전통과 문화

러인과 해외동포에게 민요, 거문고연주, 사물놀이, 성씨별 역사, 족보나누기, 고향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불교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 위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가상으로 신랑·신부가 돼 한국 전통 혼례식을 재현했다.

를 알리고 돌아왔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 학생과 지도자 53명은 구립 21-3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싸마르칸트, 테레미즈, 부하라 등에서 한민족 교류협력활동을 펼쳤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파라미타가 주관한 'Overseas Koreans Network을 위한 비상(飛上) 행사'는 한국 청소년들이 해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해외 자원봉사활동이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민간의교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짧은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610여 명의 고

려인 소개, 민요배우기, 절하기, 다도 등을 소개했다. 또 한복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한복 516벌을 고려인 문화협회에 기증하고, 한국 전통혼례식을 원하는 고려인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통과 풍습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인구의 88%가 이슬람교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자신들을 불

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에 교민과 고려인들의 경제적·문화적 민족망을 형성하고 체험위주의 활동을 통해 민족애를 확인했다"며 "평소 고려인에 대해 무관심했던 한국 신세대들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참가자 전원은 월1만원 기부 등을 통해 고려인들과의 지속적인 국제 교류협력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1000字 뉴스

봉축위원회 부처님오신날 표어 공모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에 사용될 봉축 표어를 1월 29일까지 공모한다.

표어 내용은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알리는 내용 △사회적 소통과 화합을 불교적 메시지를 담아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격려하거나 포교와 불교증흥에 관련된 내용 등으로 글자 수 10자 내외로 개인당 2개까지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봉축위 이메일(kang@buddhism.or.kr)을 통해 가능하며 당선작에는 상금 3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02)2011-1744

고우 스님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2. 25~28.

초조, 불안, 복잡한 인간관계, 과도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떨쳐버릴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월 25-28일 봉화 금봉암에서 실시되는 간화선입문은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지도한다. 참가비는 16만원으로 선착순 30명 접수. (02)735-2428

제따와나선원 대만 불교성지 여행

제따와나선원은 2월 3-7일 대만 불교성지순례를 떠난다. 성지순례단은 대만 불광사, 중대선사, 자제공덕회 등을 순례하며 대승불교의 성공적인 포교법을 보고 배운다. 각 사찰 외에도 정토동굴, 대비전 불교문물전시관, 조산회관, 야류 자항사,용산사 관광, 야시장 관광,국립고궁박물관 등도 방문한다. 1월 20일까지 선착순 10명을 접수 받는다. (019)250-9400

깔아나미따명상선원 위빠사나 인터넷 강좌

깔아나미따명상선원은 1월 13일 밤 9시부터 '고통의 소멸=깨달음의 대중화' 인터넷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담당 지도 법사인 아놀라 스님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문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된다. 그밖에도 1월 18-22일 위빠사나 사띠 집중수행, 25-29일 5계 집중수행도 실시한다. cafe.daum.net/kalyanamitta

대한불교교사대학 어린이법회 교사 12기 모집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법회 교사 양성을 위한 어린이지도사과정, 전문지도사과정(자격증반), 정규반(학교에 직접 와서 강의를 청강하는 반), 사이버반(본교에 오지 않고 교사대학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청강하는 반)을 모집한다. 1년 교육과정으로 교육비는 분기당 15만원. (051)852-0852

불교교육단체련 연합포교사 고시 합격자 발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안동일)는 1월 11일 제8회 연합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수석합격자는 박해서(동산불교대), 차석합격자 박상태(만불불교교양대), 최고령합격자 김선옥씨 등 56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글모음 '선연' 창간 "최상의 진로지침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구제해 주는 청소년 글 모음집 <선연(善緣)>(청소년글모음집 선연 편집위원회 · 서술지부 공동대표 이은선 · 사진) 창간호가 구립 30일 발행됐다.

<선연>은 청소년들이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전공을 꿈꾸는 분야에 대한 논문, 진로적성 탐구활동, 체험활동보고서 등의 묶음집이다. 학생들의 꿈을 글로 표현하면서 구체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간됐다.

창간호에 실린 주제들은 학생들이 썼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인문계 논문에는 '현대의 심리 문제를 위한 심리치료' '현대 불교에서의 청소년 포교' '21세기 대한민국의 게임의 가치' 등 문화, 봉사,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논문이 실렸다. 자연계 논문에는 '신종 플루' '노화의 원인 세포' '또 따른 우주' 등 논문이, 직업탐구, 체험수기를 비롯해 봉사활동 수기, 소설, 수필 등 총 49편의 다양한 글이 수록됐다. <선연> 편집위원회의 조직 운영은 리더십 배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운영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구성은 전국불교종립 학교인 능인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학교 등을 중심으로 향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지부, 지회, 분회조직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임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또 청소년학술상을 제정해 발표활동과 대학진학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며 모음집은 300쪽 내외로 연 2회 발간된다.

파라미타 중앙위원 박영동 법사는 "학생들이 객관적인 자기 이해도 없이 주변의 권유에 의해 진로를 선택하며 대학을 입학하지만 대부분이 만족을 못하고 있다"며 "<선연>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희망 직종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최상의 진로지침서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지도자의 산실 대원불교대학이 보다 편리해진 교통(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2번출구)으로 불자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모집과정

지원자격

원서접수

입학식

문의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대학, 대학원 과정 주·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4과목)

명상심리치유학과
대학과정 주·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4과목)

*특전: 각 학과를 수료 후 소정의 자격고시를 실시하여 불교상담사, 명상치유사, 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대학과정: 각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대학원과정: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2010년 2월 28일까지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2010년 2월 28일(일) 오후 2시 대원정사 큰법당

대원불교대학 T. 02)773-9171 FAX. 771-6796
서울 용산구 갈월동 59번지 8호 대광빌딩 3층

